

빨라지는 전동화... 전기차 月내수 판매 '최다'

국내 완성차업체 2월 1만6510대...보조금 확정에 수요 몰려 현대차 포터·기아 봉고 등 상용차 전동화 빨라진 것도 주요 친환경·싼 유지비 장점...언택트 문화 유지돼 인기 이어질듯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기차(EV) 내수 판매가 역대 월간 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내 완성차 5개사의 2월 판매실적을 종합한 결과 내수시장에서 전기차는 전년 동월보다 34.9% 증가한 1만6510대 팔렸다.

현대자동차(8824대)와 기아(7686대)를 합산한 수치다. 다른 3사(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자동차)는 지난달 전기차 내수판매가 없었다.

직전 월간 최대판매 기록은 작년 10월의 1만 4886대였다. 당시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1만3779대, 한국GM이 1107대를 판매했다.

2월 전기차 판매 증가는 기본적인 전기차 수요 증가에 더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2월 확정되면서 수요가 몰린 시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국내 대표 상용트럭인 현대차 포터 EV와 기아 봉고 EV가 1만대 가까이 팔리며 실적을 견

인했다.

포터는 전년 동월보다 64.8% 증가한 4872대, 봉고는 74.0% 증가한 525대가 팔려 두 차종 합산 9897대가 판매됐다.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약 60%다.

업체에 따르면 전기차 단일 차종이 월 5000대 이상 팔린 것은 봉고가 처음이다.

특히 포터의 전기차 모델인 포터II 일렉트릭은 2019년 12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총 5만269대가 팔리며 출시 3년 3개월 만에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기아의 상용 전기트럭 봉고III EV도 2020년 2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3만6512대 판매했다.

포터와 봉고 EV 등 소형 상용트럭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경제성과 정속성을 내세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상용차는 실어야 할 짐의 무게 때문에 대부분 토크가 좋은 디젤엔진을 장착하지만 최근 탄소 배출 문제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 상



현대차 포터 EV(오른쪽)와 기아 봉고 EV(왼쪽)가 1만대 가까이 팔리는 등 실적을 견인하면서 지난달 전기차 내수판매가 역대 월간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용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지난해 급등한 유가를 고려하면 저렴한 유지비는 포터와 봉고EV의 또다른 장점이기도 하다.

아울러 코로나로 급성장한 배달 시장을 겨냥해 소형 트럭을 찾는 자영업자가 늘고, 차박 인기에 상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인구가 많아진 것도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1.5t 미만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신규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정부 정책도 지난해 3

월 일몰됐지만 최근 몇 년간 두 차종의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반조립제품(CKD)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 5사의 2월 총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3% 증가한 65만2817대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코나 등의 신차효과가 눈에 띄는데 국내에서 6만5015대, 해외에서 26만2703대를 팔아 전년 동월을 7.3% 웃도는 판매실적을 냈다.

전기차 내수판매 2위에 오른 포터는 내연기관 모델까지 포함하면 한 달간 국내에서 1만1천99대가 팔리며 전체 차종 중 1위를 기록했다.

기아는 국내 5만105대, 해외 20만3922대 등 총 25만4027대를 판매했다.

전기차 내수 1위를 기록한 봉고가 8977대로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스포티지는 국내외 해외를 합쳐 3만7945대 판매되며 실적을 이끌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동화 SUV, 새로운 경험을 만나다

기아 EV9 티저 공개...이달중 내·외장 디자인 공개

기아는 최근 'The Kia EV9' (더 기아 이브이 나인, 이하 EV9·사진)의 공개에 앞서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2일 선보였다.

EV9은 기아가 '21년 출시한 EV6에 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두 번째 전용 전동화 모델로, 전동화와 지속가능한 브랜드로의 변화를 이끌 플래그십 SUV다.

EV9의 차명은 기아의 전용 전기차 명명 체계에 따라 전기차를 의미하는 'EV'와 전용 전기차 라인업에서 플래그십의 위치와 역할을 상징하는 숫자 '9'을 더해 정해졌다.

이날 기아가 공개한 이미지와 영상은 차량의 실루엣과 함께 전·후면부에 적용한 다양한 조형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실루엣을 통해 드러난 EV9은 긴 휠베이스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케 하며, 전폭과 전고 등 차체 비율이 정통 SUV 형태를 띠고 있어 전동화 SUV로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전달할 것을 예고한다.

전면부는 내연기관의 그릴이 있던 자리에 위치한 깔끔한 면 위로 여러 개의 조명이 빛을 밝히며 헤드램프와 조화를 이뤄 첨단 기술이 고도화된 가까운 미래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후면부는 차량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리어 램프가 차폭을 한층 더 강조하며 당당한 인상을 부여하는 동시에 전면부와 통일감을 준다.

앞서 기아는 지난 2021년 11월 '2021 LA 오토쇼'에서 EV9의 콘셉트 모델과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위장막으로 차체를 가린 채 주행 시험을 하는 모습을 차례로 공개한 바 있다.

이달 중순에는 EV9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달 말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달 중순에는 EV9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달 말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에는 EV9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달 말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에는 EV9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달 말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에는 EV9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달 말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에는 EV9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달 말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표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 명예감독 남는다

지난 10년간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을 이끌었던 김진표(사진)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는다.

김진표 감독은 신영학 운영총괄 팀장을 엑스타 레이싱팀 새 감독으로 선임하며 2023년 시즌 준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김진표 전 감독은 명예감독으로 남을 예정이다.

김진표 감독은 2014년 가수 겸 방송인인 김진표 감독과 일본 출신의 전 F1 드라이버 이대유지 선수, 정의철 선수 등이 포진한 엑스타 레이싱팀을 창단했다.

김진표 감독이 이끄는 엑스타 레이싱팀은 창단 이듬해인 2015년 CJ슈퍼레이스에서 팀 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팀 챔피언, 2020년에는 팀·드라이버 더블 챔피언을 차지한 바 있다.

또 2022년 삼성화재 6000클래스 7라운드에서는 엑스타 레이싱팀의 이찬준, 이정우, 이창욱 선수가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김 감독은 금호타이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엑스타 레이싱팀이 명문 팀으로 발돋움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진표 감독은 "10년간 함께한 엑스타 레이싱팀, 금호타이어의 모터스포츠 관련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새 감독과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이 최고의 레이싱팀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감독은 지난 2005년 국내 카레이서로 입문해 2009년, 2011년 CJ슈퍼레이스에서



중독 챔피언을 지낸 바 있다. 이후 2014년 엑스타 레이싱팀으로 팀을 옮겨 활약하며 감독이자 드라이버로 동시에 활약하며 국내 모터스포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

20일까지 33개 직무...온·오프라인 채용설명회

기아는 오는 20일까지 3월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eLCV(전기소형상용트럭) 비즈니스 ▲고객경험 ▲고객안전 ▲특수사업 ▲국내생산지원 ▲생산기회 ▲PT(파트너)사업 ▲상품 ▲구매 ▲연구개발 ▲AutoLand 화성 ▲AutoLand 광명 ▲AutoLand 광주 등 각 본부 및 사업부에서 총 33개 직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채용 기간동안 기아는 현직자와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방식과 직무에 대한 소개 및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는 이날부터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교를 찾아가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10

일과 17일 양일간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기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채용 방식을 도입 중이다.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로 상시 채용을, 하반기에는 부문별로 일괄 채용을 실시한다.

상반기 기아의 신입 상시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매달 초 기아 채용 홈페이지(career.ki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구직자의 관점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캐피탈회사, 자동차 할부 금리 인하 잇따라

현대캐피탈·현대캐머셜 1%p 내려

이달 들어 캐피탈회사들이 자동차 할부 상품 금리를 내리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달 자동차 할부 상품의 금리를 1%포인트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 상품인 '모빌리티 할부형(현대자동차)/M할부형(기아)'의 경우 36개월 기준 5.7%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달 출시한 변동금리형 할부 상품은 출시 한 달 만에 금리를 1%포인트 내렸고 할부 옵션도 확대했다.

현대캐피탈은 기아와 함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동 할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 프로모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객의 상품

금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생산된 기아의 모든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최장 36개월 3.5%의 초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캐머셜은 상용차 차주들을 위해 '상용차 변동금리 신차 할부'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현대차 상용차(파비스, 뉴파워트럭, 엑시언트, 유니버스)의 할부 금리 전 구간을 1%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현대캐머셜은 '표준형' 할부 상품 기준으로 60개월 할부 시 약 8.7% 수준의 이자를 적용했는데 이달부터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현대캐머셜 관계자는 "상용차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할부 금리 전 구간을 내리고 시장 금리 하락 시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용차 변동금리 신차 할부' 상품도 출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벤츠 코리아, 20주년 기념 '봄맞이 서비스 캠페인'

내달 22일까지 엔진오일 등 필수 항목 무상 점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한국 시장 진출 20주년을 맞아 다음 달 22일까지 '봄맞이 서비스 캠페인' (사진)을 진행한다

우선 캠페인 기간 전국 77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벨트류, 배터리 등 필수 항목들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봄철 잦은 미세먼지, 황사 등 불순물에 의한 부품 손상 및 실내 공기 오염에 대비해 엔진 오일, 와이퍼 블레이드, 실내 공기정화 필터, 오일 필터 등 주요 부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겨울철 마모된 타이어를 점검하고 교체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타이어 4본 이상 구매 고객 대상에는 타이어 교환 비용 지원 및 사은품 증정도 진행한다.

여기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유상 수리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사은 행사도 진행한다. 누적 주행거리 20만km 이상 고객에게



는 벤츠 미니 트래블백이 사은품으로 제공되며, 50만원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추첨을 통해 고급 호텔 상품권, 벤츠 위켄드 백, 벤츠 300SL 모델카 등 경품을 증정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